

사회



수능 시험지 도착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을 3일 앞둔 15일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에 도착한 수능시험지를 공무원들이 운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탐구영역 선택한 과목만 풀어야

‘수능 D-2’ 수험생 유의사항 꼼꼼히 챙기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8일)이 이를 앞두고 다가왔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선택영역, 선택과목, 시험장과 시험실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부정행위 자로 적발돼 시험을 망치지 않도록 수능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

반입금지 물품 휴대는 금물=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계, 시계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수능시계)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금지 품목이다.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주의해야> =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색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샤프펜슬 외의 필기구

수능 부정행위 9대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수험생간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행위 수단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의 이용
- 대리시험의 의뢰,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거나 강요·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 작성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대한 불응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37명(4.3%),

992명(4.6%)이 늘었다.

광주에서는 재학생이 1만8535명으로 지난해보다 428명 늘고, 졸업생은 3709명으로 538명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재학생이 1만7912명으로 지난해보다 551명 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2000명과 324명으로 각각 286명과 55명이 증가했다.

광주는 2만2859명, 전남은 2만236명

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937명(4.3%),

992명(4.6%)이 늘었다.

광주에서는 재학생이 1만8535명으로 지난해보다 428명 늘고, 졸업생은 3709명으로 538명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재학생이 1만7912명으로 지난해보다 551명 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2000명과 324명으로 각각 286명과 55명이 증가했다.

광주는 2만2859명, 전남은 2만236명

수능 추위 없다

18일 광주·전남 맑고 15~16도 포근

일교차 커 새벽엔 쌀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8일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기온을 유지하겠으나, 일교차가 커 새벽길을 나선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인 18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4도~7도, 낮 최고기온은 15도~16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15일 예보했다.

또 이날 서해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은 1~2m로 도서 지역과 내륙을 오가는 선박 운항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수능날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면서 수험생들의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갑자기 찾아온 가을 추위는 수능시험 예비소집일인 17일 평년기온을 되찾아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완도 해경 섬 수험생 경비정 수송

기아차 광주·전남본부도 긴급 차량 지원

목포와 완도해경이 전남 서남부 섬에 사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18일 시험을 앞두고 서남부 섬 수험생들이 기상악화로 목포와 진도, 완도 시험장으로 나오지 못할 때 경비정을 지원, 긴급 수송하기로 했다.

목포해경은 진도와 신안 등 6개 섬 88명의 수험생을 위해 경비정 6척을,

완도해경은 3개 섬 78명을 육지로 각각 수송하기 위해 경비정을 비상 대기시켜 놓고 있다.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김재훈)도 수험생 차량지원에 나선다.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수험생 도우미 봉사’를 이용하려면 사전 예약 기간인 17일까지 기아차 콜센터(1588-1100)로 연락하면 된다.

2500만 고객을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카드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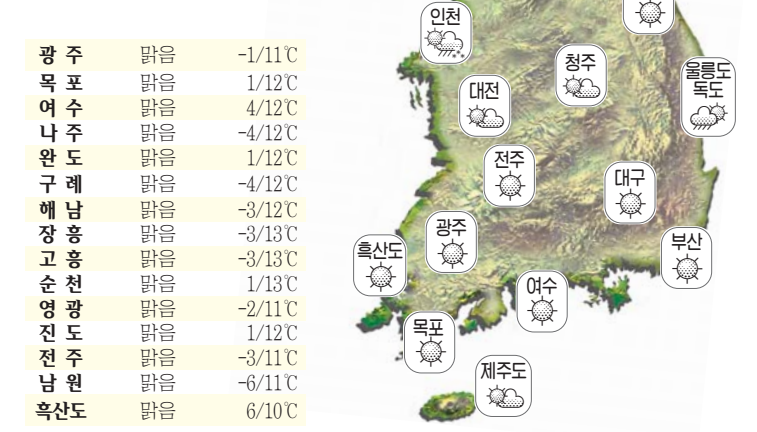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한정 5% 할인 / 영화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배달 2천원 할인 / 학원 배당 1만원 할인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8분 해질 17시 26분
달돋이 14시 09분 달질 01시 47분



지역	기온	바다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광주	맑음 -1/11℃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보통
목포	맑음 1/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여수	맑음 4/12℃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나주	맑음 -4/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완도	맑음 1/12℃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구례	맑음 -4/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영암	맑음 -3/13℃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고흥	맑음 -3/13℃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순천	맑음 1/13℃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영광	맑음 -2/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진도	맑음 1/12℃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전주	맑음 -3/1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남원	맑음 -6/11℃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면바다	0.5~1.5m	1.0~2.0m	낮음
옥산도	맑음 6/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면바다	0.5~1.5m	1.0~2.0m	관심

광주인권상 아웅산 수치 여사 광주 초청

5·18기념재단, 내년 5월에

2004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내년 5월 광주를 찾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15일 ‘아웅산 수치 여사 가택연금 해제 환영 성명서’를 내고 내년 5월 5일 기념행사 초청장을 버마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009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민교나이를 비롯한 2000여명의 정치적 양심수의 석방도 조속히 실현돼 버마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라고자 국내외 연대활동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의 의미에 대해 “국제사회가 아웅산 수치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한 노력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2009년 광주인권상 수상자 민교나이를 비롯한 2000여명의 정치적 양심수의 석방도 조속히 실현돼 버마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오창영 선생이 수학공부를 100% 책임 집니다!

세계최고 노트필기 특수학습비법 창안자 오창영 선생이 초등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수학공부비법」 공개 특강 CD 무료배부 이벤트 (선착순 1000명)

특강 주제 제 1편 공부를 잘하려면? 제 2편 수학을 잘하려면? 제 3편 100% 오창영 책임이다

자녀 수학성적 부진과 향후 수학교육으로 고민 많은 학부모들을 위하여 오창영 선생이 특별공개한 수학교육해법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화주시면 자녀수학 학습가이드북(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것은 100% 선생님 책임이다) 1권과 자녀 수학 공부비법 공개 특강 CD를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수학산신령 오창영 선생, 그는 누구인가?

오창영 先生은 18년전부터 월 2,000만원 초고액과외 할 때 자신이 개발한 독특한 노트필기식 수학기초강사이다. 개념과 원리중심의 노트필기 특수비법을 창안(오창영은 리수학 저자/ 강사)하였으며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5분 안에 수학공부에 몰입하게 해줄 정도로 피를 토하듯 열정적인 강의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그의 제자들 중에 상당 수는 서울대, 포항공대는 물론 미국 예일대까지 진학할 정도로 수학에 관련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오창영 先生은 노개명수학의 대표강사이며 서울 강남지역의 수학기초 강사들에게 교수법을 통하여 후진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 택이 이런 자녀가 있다면 꼭 무료 CD 신청하십시오.**
- 1 초등 3학년 이상으로 수학영재성을 보이는 자녀
 - 2 초등때 중학수학 3년 과정을 3개월에 마스터할 자녀
 - 3 학원수강, 과외로도 수학성적이 오르지 않는 초등생자녀
 - 4 중학생으로 수학내신성적이 부진한 자녀
 - 5 중고생으로 수학을 포기할것만 같은 자녀
 - 6 서울대,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 진학이 목표인 수학영재
 - 7 수학에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초등생자녀

CD 및 수학교육 가이드북 무료신청전화
1566-7155



초등 3학년 이상이면 중학수학 3개월에 확실하게 끝내줍니다